



# 네팔의 사향과 응담

글/ 김무열 평화방송 편집위원

네팔은 히말라야 중앙부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은 히말라야 산맥을 건너 중국의 티벳과 동서남은 인도와 접하고 있다. 동북쪽에 세계 최고봉인 Everest를 주봉으로 7,000m가 넘는 고봉들이 20여 개나 둘러있고 남부는 Hindustan평원까지 연장된 산림지대가 자연적인 국경 지대를 이루고 있다. 1769년에 구르카왕조가 창립하여 그간 영국의 실권하에 있다가 1923년에 독립했다. 힌두교를 국교로 하고 있으며 세계의 산약인들이 모여드는 유명한 산약 국가인데 북한과는 등거리 외교를 하고 있다. 네팔에는 야생의 사향노루와 곰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불로장생의 신약으로 사용되려 오지는 않은 것 같다.

아직도 문맹자가 많다고하여『유니세프』라는 국제원조기관에서 의료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한다. 네팔은 그만큼 원시림에 파묻힌 전근세적인 봉건국가로서 그들의 생활 또한 원시적이다. 그러나 그곳에는 문명이 발달된 선진국보다 오히려 질병이 적고 병에 걸리는 일도 적다고 한다. 네팔의 원주민들은 사향이나 응담을 전승적으로 대부분 모든 병에 치료약으로 사용하는데 효과가 크다고 믿고 있다.

사향은 네팔에서 산출되는 것이 거의 없고 중국 본토의 티벳에서 산출되어 티벳 상인들이 야생사향을 채취하여 10일이상이나 걸리는 높은 산등을 넘어 이

곳에 팔려 온다고 한다. 상인들은 티벳이 세계최고의 영봉(靈峰)이라고 하며 이곳에 응담과 사향을 구하러 온다는 것이다. 지금도 티벳의 사향이나 응담은 야생 그대로의 순수한 것이 많기 때문에 한약상들과 보약을 구하는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네팔에는 곰과 사향노루 등이 많이 야생하고 있으나 응담이나 사향을 목적으로 그것을 잡기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라고 하며, 티벳 사람들은 응담과 사향을 험준한 고원지대를 지나 주로 네팔에 이것들과 다른 약재를 팔려온다고 한다. 요사이 약삭빠른 중국? 홍콩의 상인과 일본인들이 네팔의 응담과 사향을 사기위해 몰려들고 있으며, 시장은 그들 상인들로 인해 활기를 더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네팔에서는 가을철 1년에 한번씩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 곰과 사향노루를 사냥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같으면 도지사나 군수가 허가하지만, 그들은 곰이나 사향노루에서 응담이나 사향을 떼내기 위하여 잡는 것이 아니고, 농사를 망치는 유해조수로 그것을 잡는다고 한다.

네팔에도 가짜 응담이나 가짜 사향이 있는가는 필자가 알기로는 가짜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며, 1년에 한번씩 잡을때면 상당히 많이 잡기는 하나 그들 가운데 특별히 엽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냥꾼은 따로 없고 농민들이 원시적이며 전승적인 기구, 이를테면 빛이



나 훔쳐오는데 불과 수십년전에만 하더라도 이것이 것처럼 귀중한 약제인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었으나 약삭빠른 각국의 상인 특히 중국 상인들이 들어와 카투만두에 진을 치고 있다가 그것을 혈값으로 사간다고 한다.

옛날에는 사향이나 웅담은 다만 전승적인 민간약으로서 가정용으로만 작은 양을 사용하는데 불과했다고 하는데 특히 토착 주민들중 여자들은 사향을 대단히 소중히 여겨 몸에 간직하고 다녔는데 그들은 수공으로 만든 은제 공예품 속에 사향을 넣어 차고 다녔다고 한다. 그것은 바로 사용한 토산 향료였던 것이다. 그들의 사향은 향기만 맡아도 어지간한 병은 모두 낫는다고 믿었다.

웅담 역시 전승 민간약으로 다른 것과 배합하여 먹는 것이 아니라 웅담 한가지만 단용으로 먹는다. 네팔 여인들 중 도시인들보다 시골에 갈수록 수공으로 만든 은제의 공예품인 목거리나 팔찌를 하고 있는 여자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

네팔은 60년도 초부터 10여년간 쇠국정책을 썼다가 75년 이후에 비로소 개방되었다. 그러니 75년 이전의 네팔은 상당히 미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현재에는 그 당시보다 많이 발전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티벳 상인들이 네팔을 오는 제일 가까운 코스가『헬랜부』를 거쳐 오는 길인데 만 4일이 걸린다고 한다. 티벳 상인들은『라마』라는 말을 이용해서 험준한 산을 넘어 오는데 네팔이 山岳內國이므로 소금을 팔러 온다는 것이다. 또 그들은 루비나 사파이어 등의 보석 원석을 많이 가지고 팔러온다. 지금도 네팔에서는 웅담이나 사향은 그다지 비싸지는 않다. 곰은 매년 상당히 많이 잡는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오지 주민들의 집에는 곰의 모피가 집집마다 상당히 많다. 그들은 그것을 집안 마루에 깔기도 하고 겨울철에 옷이나 신으로 만들어 신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은 곰과 같은 큰 동물은 존경하고 있다. 카투만두에 가면『예티』라 하여 설인의 머리털이 전시되고 있는데 이것은 전설에 나오는 진정한 설인(雪人)의 머리가 아니고 곰의 머리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히말라야에

정말 雪人이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으며 다른 큰원숭이 가족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으나 아무튼 20세기의 수수께끼 하나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웅담에 비해 이곳에서는 사향이 더 비싸다. 그래서 귀족들에 의해서 애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네팔에 대사관을 두고 있으며 대우의 김우중씨가 명예영사이다. 영사관은 서울역전에 있는 대우빌딩 5층에 있고 그곳에서 비자를 발급하고 있으나 네팔인은 한사람도 없다.

네팔은 산악국가이기 때문에 등산철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산악인들로 인하여 인종 전시장이 되고 만다. 한국 산악회 회원으로 등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입국은 생각보다는 매우 쉽다고 한다.

네팔에는 여러곳에 영국인들의 호화 고급 별장이 많이 남아있는데 약간의 돈을 지불하면 누구나 얻어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김모씨라는 사람은 일년의 반 이상을 네팔의 별장에서 충실한 네팔 하인을 거느리고 귀족이나 부호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곳의 오염되지 않는 원시적인 대자연은 너무나 아름답고 황홀하여 꿈에도 잊을 수가 없는 에텐의 동산과 같은 곳이라고 지금도 그리워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필자는 1988. 8월에 처음으로 네팔을 방문 45일간 각지로 돌아보았다. 특히 그곳에서 지진도 만났고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네팔 산삼을 시보뿌리(Shioupuri)산 해발 2,500m에서 발견했고 그 표본을 지금도 잘 보관하고 있다.

고려인삼 *Panax Ginseng* C. A. Meyer에 비하여 상당히 세엽(細葉)이고 지방에 따라 형태가 다르다. 뿌리는 중국 운남(雲南)지방과 티벳지방에서 자생하고 있는 주자삼(珠子參)의 모양을 닮아 마치 염주를 실로 연결한 것 같이 되어 있고 지상부는 고려인삼에 매우 유사하며 잎은 가늘고 길며 가장자리는 톱니 모양을 하고 있다.

약삭 빠른 일본 상인들이 네팔 야생인삼으로 제약을 한다고 하니 멸종이 우려된다.